

GWANGJU F.C INFORMATION

2011 K리그/리그컵 홈경기 일정 안내

Round	경기 날짜	시간	상대팀
1	3월 05일(토)	15:00	대구
4	4월 02일(토)	15:00	포항
5	4월 09일(토)	15:00	상주
리그컵3	4월 20일(수)	19:00	전남
7	4월 24일(일)	15:00	서울
8	5월 01일(일)	15:00	대전
리그컵5	5월 11일(수)	19:00	울산
11	5월 22일(일)	15:00	인천
13	6월 11일(토)	19:00	성남
14	6월 18일(토)	19:00	전남
17	7월 09일(토)	19:00	강원
18	7월 16일(토)	19:00	전북
20	8월 06일(토)	19:00	경남
23	8월 27일(토)	19:00	제주
26	9월 25일(일)	15:00	부산
27	10월 02일(일)	15:00	울산
29	10월 23일(일)	15:00	수원

2011 K리그 시즌권 판매

회원권 가격안내

- ▶ 일반인(E·W석) : 어른 10만원 / 청소년 5만원 / 어린이 3만원 / 홈경기 모든 게임
- ▶ 서포터즈(N석) : 어른 6만원 / 청소년 4만원 / 어린이 2만원 / 홈경기 모든 게임

회원권 구매안내

- ▶ 온라인 : www.ticketlink.co.kr (신용카드 및 무통장 거래 / 24시간 운영)
- ▶ 오프라인 : 광주FC사무국, 광주FC 각 매표소 (신용카드 및 현금 구입 / 평일 09시~18시 운영)

무료제공 혜택

- ▶ 어른 : 유니폼·리플렛카드(매일리카드 혜택 포함) 제공
- ▶ 청소년·서포터즈 : 조마 티셔츠·리플렛카드(매일리카드 혜택 포함) 제공
- ▶ 어린이 : 조마 티셔츠·구단사인볼·짐백 제공

All for one 2011

빛고을 광주FC서포터즈

광주FC 공식 서포터즈 빛고을에서 승리의 순간을 함께 즐길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회원등록 및 원정경기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바랍니다.
www.gwangjufc.co.kr

광주FC 공식 후원업체 GWANGJU FOOTBALL CLUB SPONSORS

정상에 등극하라! 경제강국 KOREA!

온갖 악조건과 위기의 상황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용기와 집념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신화 -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함께 힘겨운 경제한파 속에서도 정상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강국 KOREA를 향해 - 다시한번 FIGHTING!

KJB **광주은행**

통권 제03호

VIEW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 5라운드

2011. 04. 09 SAT 15:00 KICK OFF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FC vs 상주상무

GWANGJU F.C Matchday Program 2011 VIEW-No.03

POINT of VIEW

관전 포인트 광주FC vs 상주상무

옛주인과 새주인의 '첫 만남'
광주FC, 9일 오후 3시 광주W서 상주상무와 격돌
물오른 공격듀오 박기동·김동섭 앞세워 필승 다짐
"상주 공격의 핵 김정우 막고, 수비불안 노려라"

개막전 승리 이후 연패에 빠져 있는 광주가 이번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광주를 9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김정우를 앞세워 리그 무패를 달리고 있는 상주와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5라운드 맞대결을 펼친다.

광주는 대구와의 개막전 승리 이후 리그 전통 강호들과의 일정에서 연거푸 패하며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이번 상주전에서 '필승'을 다짐하는 이유다. 이후 강호 전북과 서울을 차례로 상대해야 하는 광주로서는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반전이 필요하다. 사실 상주는 광주에게 최악의 카드는 아니다. 상주가 리그 초반 2승2무로 무패 행진을 하고 있으나 공격력에 비해 실점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주로 연고지를 옮긴 이후 김치우, 최효진 등 국가대표팀 출신 선수들이 입대하며 전력 업그레이드에 성공했다. 확실한 득점 타겟이 없던 상주는 김정우를 공격수로 기용하는 파격적인 전술 변화를 통해 현재 리그에서 가장 많은 11득점으로 매서운 공격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끌어올린 공격력만큼 수비 불안이 심각하다. K리그 16게임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많은 실점을 내주고 있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 특히 모든 실점이 원정 경기에 몰려있어 상주의 원정 수비력에 불안요소가 있음을 보여준다.

광주는 그동안 모든 경기를 뛰어왔던 안성남이 휴식을

취했고 부상으로 재활을 하던 이승기가 주중 리그컵에서 70분을 소화하며 감각을 끌어올림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아가자리한 패스 플레이와 영혼의 투톱인 박기동, 김동섭으로 이어지는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대표의 맞대결' ... 박기동(광주) vs 김정우(상주)

개막전 두 골을 넣으며 리그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던 박기동. 그는 조광래 감독의 부름을 받아 국가대표팀에 승선하는 기쁨까지 누렸으나 이후 골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수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볼을 따내고, 위력적인 고공 플레이는 여전히 상대 수비수들에게는 요주의 인물이다. 원정에서 수비가 다소 불안한 상주의 모습이라면 이번 경기에서 박기동의 득점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김정우는 현재 K리그 득점 1위, 공격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다. 상주 이수철 감독이 미디어 데이에서 김정우를 전방 스트라이커로 기용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 큰 기대를 갖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그는 매 경기 골을 넣으며 최상의 컨디션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광주로선 김정우의 득점을 반드시 봉쇄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 셈이다. 김정우는 본 포지션이 미드필드이기 때문에 상주가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상주를 꺾을

수 있는 해법 아닌 해법이다.

광주FC, 홈경기 승리기원 티켓 이벤트

"홈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시민 앞에 약속했던 광주FC가 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9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국군부대 상주상무와의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다음경기 무료 초대키로 한 것.

광주는 지난 3월 5일 대구FC와의 홈 개막전을 펠레스코어 승리로 장식하며 돌풍을 예고했으나 수원과 울산, 포항 등에 모두 1점차로 석패하며 축구팬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최만희 감독이 말하는 '재미있는 축구'가 경기에 녹아들면서 다양한 팬층을 확보,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오는 한 달여 동안 모두 4번의 홈경기를 앞둔 광주는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다음경기 무료입장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단, 이번 조치는 입장권 구매자에 한해 팀이 홈에서 2연패 이상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광주FC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홈 팬들에게 반드시 이기는 경기,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준다는 선수단과 프런트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팀이 연패 중이기는 하지만 관중들이 다음 경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 만큼 9일 상주전은 꼭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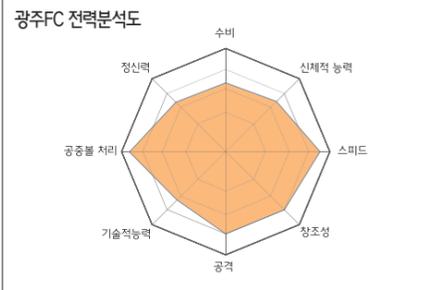
2011 GWANGJU F.C MEMBERS

광주FC 선수단 소개



○ 선수 소개

No	포지션	이름	생년월일	키/체중	출신교	공격포인트
1	GK	박호진	1976.10.22	190/85	연세대	
2	DF	정우인	1988.02.01	185/76	경희대	
3	DF	박병주	1985.03.24	185/79	단국대	
4	DF	이 용	1989.01.21	187/79	고려대	
5	MF	임선영	1988.03.21	185/77	수원대	
6	MF	김은선	1988.03.30	181/77	대구대	
7	MF	이승기	1988.06.02	177/67	울산대	
8	MF	안동혁	1988.11.11	176/74	광운대	
9	FW	김동섭	1989.03.29	187/78	창원고	3골 1도움
10	FW	박기동	1988.11.01	191/83	숭실대	2골 1도움
11	MF	조우진	1987.07.07	177/70	포철공고	
13	FW	김호남	1989.06.14	178/73	광주대	
14	FW	유동민	1989.03.27	191/91	초당대	
15	FW	유종현	1988.03.14	196/92	건국대	
16	FW	김성민	1987.05.11	185/75	호남대	
17	MF	박 현	1988.09.24	175/65	인한대	
18	MF	김홍일	1987.09.29	178/72	연세대	
19	MF	박희성	1987.04.07	170/68	호남대	
20	DF	고은성	1988.06.23	174/73	단국대	
21	GK	조상준	1988.07.24	187/85	대구대	
22	DF	김수범	1990.10.02	176/68	상지대	
23	MF	박성화	1988.08.23	176/71	조선대	
24	DF	박요한	1989.01.16	177/73	연세대	
25	FW	김성민	1985.04.19	175/67	고려대	
26	DF	노형석	1988.11.17	186/80	동국대	
27	DF	임하람	1990.11.18	186/87	연세대	
28	MF	윤광복	1989.01.25	180/74	조선대	
30	FW	김성민	1990.09.27	181/73	전남과학대	
31	MF	허재원	1984.07.01	188/81	광운대	1도움
32	MF	박상현	1987.02.11	175/68	고려대	
33	GK	성경모	1980.06.26	183/85	동익대	
34	DF	안성남	1984.04.17	172/68	중앙대	
35	MF	이재찬	1987.07.26	178/69	조선대	
36	FW	주영필	1988.06.02	170/65	브라질	
37	FW	로페즈	1988.01.29	184/76	브라질	
38	MF	윤민호	1987.01.21	177/73	브라질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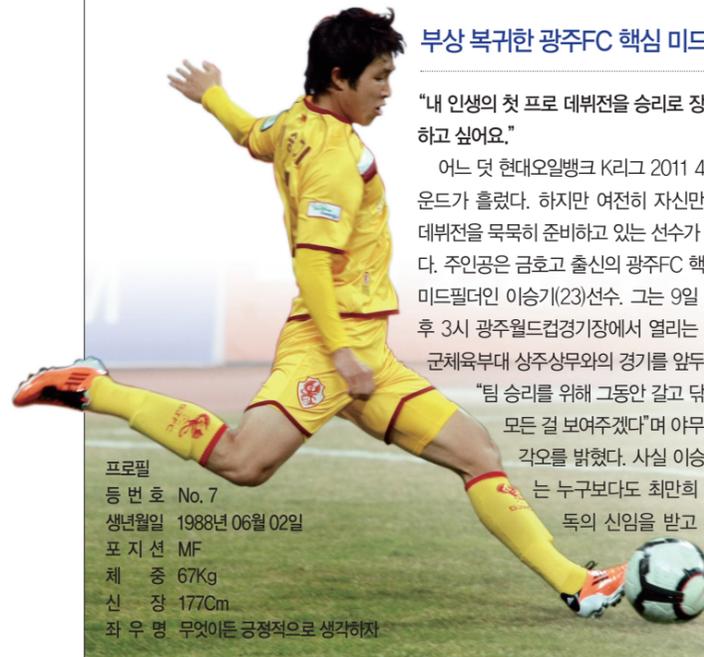


“저의 첫 데뷔전 기대해 주세요”



INTERVIEW

인터뷰 광주FC·이승기 선수



부상 복귀한 광주FC 핵심 미드필더 이승기 선수 - “팀 승리위해 앞장 설 것” 상주전 맞아 당찬 포부

“내 인생의 첫 프로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싶어요.”

어느 덧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4라운드 가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만의 데뷔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 주인공은 금호고 출신의 광주FC 핵심 미드필더인 이승기(23)선수. 그는 9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국군체육부대 상주상무와의 경기를 앞두고 “팀 승리를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걸 보여주겠다”며 야무진 각오를 밝혔다. 사실 이승기는 누구보다도 최만희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는 선수다. 그는 동계훈련 동안 3-4-1-2 포메이션에서 투톱 뒤를 받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맹활약을 펼쳤고, 지난 3월 5일 개막전 주전으로 낙점받았다. 하지만 개막 일주일 전 상주상무와의 연습경기에서 왼발목을 부상당하면서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하루하루가 무척 힘들었어요. 축구를 하면서 부상 때문에 기회를 놓친 적이 많아 억울하기도 했어요” 이승기는 이를 악물었다. 틈만 나면 재활치료를 찾아 발목을 체크하고, 훈련에도 꼬박꼬박 참여했다. 그리고 지난 6일 부산과의 리그컵에서 70분을 소화하며 팀에 핵심적인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 냈다.

그는 “그라운드를 밟는 순간 아~ 이런 기분이구나라는 셀레임과 긴장감이 교차했다”며 “팀이 승리하진 못했지만 열심히 했고 경기 내내 재밌고, 행복했다”고 지난 경기를 떠올렸다. 현재 이승기의 몸상태는 70% 정도. 그는 “아직 몸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통증이 남아있다”면서도 “불을 차면서 더욱 좋아진다. 선수들과의 호흡도 좋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승기는 광주 금호고 출신으로 3학년 때 2006 한국 축구대생 고등부 MVP에 오르며 기대를 받았던 유망주였다. 한때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울산대에서 주전으로 맹활약하며 지난해 전국 대학축구대회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다. 번뜩이는 슛력과 드리블도 일품이어서 공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다. 금호고 동기였던 기성용이 프로 무대에서 활약할 때 매혹을 대우하는 이남민을 기다려왔다. 그는 이미 광주에서 축구스타로 통한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실려서 웃는 미소가 매력적인 이승기는 여학생 팬들도 상당하다. 그의 안정된 킥과 패스는 광주 전술에 또 다른 흥미와 재미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명예기자가 바라 본 지난 경기 (광주 vs 포항)



광주FC 김남중 명예기자

또다시 발목 잡은 '경험'의 차이

현재까지 4라운드를 소화한 광주FC가 리그 3연패에 빠졌다. 초반 경기일정이 리그 전통 강호들을 상대했고 신생팀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데 어려운 모습이다. 무엇보다 정지된 상태에서 펼쳐지는 세트플레이에서의 계속된 실점은 앞으로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다.

최만희 감독은 포항의 쓰리톱을 맞아 4백과 3백의 고인에서 3백을 선택해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포항의 쓰리톱을 막기 위해 3명의 수비수로 라인업을 선택했고 이는 전반전에 먹혀들었

다. 아시아의 빠른 역습이 위협적이기는 했으나 포터가 역할을 저지하면서 포항의 공격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고 이때 끊어지는 볼을 빠르게 박기동, 김동섭에게 연결해 포항의 수비를 흔들었다. 노마크 헤딩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박기동의 찬스와 골대를 맞힌 허재원의 슈팅이 아쉬웠다.

후반전 포항이 포메이션에 바꿨다. 고우열을 측면으로 내리고 포터를 올려 아시아와 투톱을 이루는 4-4-2로 변화를 준 것이다. 미드필더에 고우열, 신형민, 김재성, 황진성으로 전반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면서 수적으로 광주 미드

필드와의 싸움에서 조금씩 점유를 하기 시작했다. 결국 후반 54분 코너킥에서 뒤에서 쇄도는 신형민을 마크 하는데 실패하며 실점을 내렸다. 이후 광주는 박희성, 김수범을 투입해 미드필드의 기동력을 끌어 올렸고 유종현을 투입 포백으로 전환하면서 공격에 사력을 다했으나 동점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우승 후보 포항을 상대로 광주로서 경기도 잘 풀어나갔고 포항의 당황스러운 경기력이 눈에 보일 정도로 위협했으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경험의 차이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백화점 · 패션 스토리얼 이·마트

광주신세계 TOWN

1995년 4월 10일 광주법인 설립!
광주신세계는 광주기업입니다.
• 2002년 광주-전남기업 중 여덟번째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 광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모든 금융활동이 현재에서 이루어집니다.
• 지역상품 판로 확대 등 일직 마케팅을 통한 상생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1회 greenLOTTE® 국제 환경미술대회

롯데환경미술대회가 세계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환경미술대회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접수안내 접수기간: 2011. 3. 25(금) ~ 4. 17(일) 접수처: 롯데아울렛 1층 안내데스크
참가비: 3,000원 문의전화: 1688-1727

일시: 2011. 4. 24(일) 오전 10시~오후 3시 장소: 광주 중외공원 야외공연장
대상: 유·초등부, 중등부, 국제학교학생 및 해외초청학생 주최: 롯데백화점
후원: 환경부, 외교통상부, 국립현대미술관, 환경재단, 한국미술협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협찬: 롯데제과(주), 롯데중심(주), 롯데백화점, 아름다운사람들, 학생생미술, 여력당, 나라교육(주)

유·초등부, 중등부 2개부문 시상
대상(각명): 환경부장관상 / 장학금 500만원 특별상(각명): 국립현대미술관장상 / 장학금 200만원
금상(각명): 한국미술협회장상 / 장학금 200만원 은상(각명): 서울대미술대학장상 / 장학금 100만원
동상(각명): 환경재단이사장상 / 장학금 50만원 우수상(장려상총 2,072명): 롯데백화점 대표이사장상 및 부상

행사장소는 지역별 선착순 진행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직책과 소속권은 롯데백화점에 귀속, 실용되나 미명 명지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및 게시물을 참조 바랍니다.

동촌동 창립 13주년 기념

매주 기다려지는 창립기념 상품여명
한달간 100여개 상품을 특가로 드립니다

일년내내, 이 가격으로!

1개당 ₩ 400 9개들어 ₩ 5천원

₩ 11,500

GWANGJU F.C Matchday Program 2011 VIEW_03